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<input type="checkbox"/> 중국 광저우시, 127억 위안 투자하여 항만건설 추진 계획	2
<input type="checkbox"/> 뉴질랜드, 포트커넥트(PortConnect) 프로젝트 계획 발표	4
<input type="checkbox"/> APMT, 러시아의 항만운영사 Global Ports의 지분 획득	5
<input type="checkbox"/> UAE, 아부다비 칼리파(Khalifa)항 1단계 운영 시작	6

□ 중국 광저우시, 127억 위안 투자하여 항만건설 추진 계획

- 광저우항(廣州港)은 광둥성과 주강삼각주를 배후지로 하는 남부지역의 핵심항만임
 - 중국 광둥성(廣東省)에 위치한 광저우항은 주강삼각주의 중심도시인 선전시, 둥관시, 중산시 등에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진 항만임
 - 중국 소비재 교역량 중의 40%가 광둥성에서 집화되어 중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음
 - 2011년 광저우항 컨테이너물동량은 1,423만TEU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13.4% 증가하였음
- 광저우시발전개혁위원회(廣州市發改委)는 광저우시가 127억 위안(약 20억 달러)을 투자하는 허브항 건설추진을 발표함
 - 허브항 건설은 광저우항 신사항구 2기공사(廣州港新沙港區二期工程), 광저우항 난사항구 잡화부두공사(廣州港南沙港區散貨碼頭工程), 광저우항 심수항로 확장공사(廣州港深水航道拓寬工程), 광저우항 난사항구 근해항로 부두공사[샤즈다오부두 2기공사](廣州港南沙港區近洋碼頭工程[沙仔島碼頭二期工程]), 광저우항 난사항구 크루즈부두공사(廣州港南沙港區郵輪母港工程)등이 있음
 - 광저우항 신사항구 2기공사는 5만 톤급 컨테이너부두 4개, 1천 톤급 바지선 부두 6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간처리능력은 190만TEU임
 - 광저우항 난사항구 잡화부두는 15만 톤급 석탄 및 광석 공용부두 1개, 15만 톤급(1개) 및 10만 톤급(2개) 석탄하역부두 3개, 1천 톤급 바지선 부두 1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간처리능력은 5,200만 톤임
 - 광저우항 난사항구 근해항로 부두공사는 5만 톤급 잡화부두 2개, 3천 톤급 및 2천 톤급 잡화부두 3개(주강간선형) 건설 및 퇴적장, 물류창고 및 예비 항만발전용지 등 22.35만㎡의 항만배후단지를 구축하는 것임
 - 광저우항 난사항구 크루즈부두공사는 10만 톤급 1개, 25만 톤급 1개의 국제크루즈부두 및 관련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, 총 계획면적 13.47만㎡이며 투자비용은 총 20억 위안(약 3억 달러)임
- 이번 항만건설계획은 광저우항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주강삼각주 서부지역의 화물운송회랑인 sea-rail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단계에 해당됨
 - 난사복합운송회랑은 작년 12월 비준을 획득하여 광저우시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sea-rail 복합운송 시스템으로, 총 길이는 101.1km이고 프로젝트 투자금액은 92억 위안(약 15억 달러)임
 - 난사복합운송회랑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,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광저우항의 지위 향상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항만으로서의 입지 확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 주강삼각주 서부지역의 복합운송 수준이 향상되고 화물운송효율 또한 높아질 것임
- 광저우항의 이러한 발전은 광둥성을 포함한 주강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항만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< 광저우항 터미널별 선석현황 (2011년 기준) >

구분	선석수(개)	선석길이(m)	수심(m)	면적(천㎡)	C/C(대)	운영사
난샤	7	1,820	9~14.5	1,820	20	NSC
난샤-2	6	2,100	14.5	2,170	-	GSCOCT
신강	3	659	12.5	270	11	GCT
신샤	3	640	12.5	390	6	GCT
총계	19	5,219	9~14.5	4,650	37	

자료 : KMI, 해외항만시설연차보고서, 2011.3

자료 : www.chineseport.cn, 2012.9.11

강지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jhkang0813@kmi.re.kr)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□ 뉴질랜드, 포트커넥트(PortConnect) 프로젝트 계획 발표

- 뉴질랜드의 타우랑가항(Port of Tauranga)과 오클랜드항(Port of Auckland)은 공동으로 포트커넥트(PortConnect) 서비스 프로젝트를 발표
 - 타우랑가항과 오클랜드항은 북부 섬에 위치한 항만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만들임
 - 선사와 수출입업자, 화주에게 단일의 “기항지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 항만을 하나의 항만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관련규제와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축소함
 - 또한, 화물 장비 이용 제공과 컨테이너 화물 저장소로의 빠른 접근을 제공하여,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할 예정임
 - 포트커넥트 서비스는 오는 9월 28일부터 제공될 계획이며, 다른 뉴질랜드 항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타우랑가항(Port of Tauranga)은 뉴질랜드의 관문항으로 수출입항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음
 - 항만 교통 상황 정보와 선박 간 커뮤니팅, 예선 서비스, 크레인 이용 등의 항만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한 One Stop Shop 서비스를 제공
 - 최대 2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 가능하며, 3개의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과 1개의 다목적 크레인 등 총 5개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음
 - 컨테이너 야적장 규모는 27 헥타르이며 25,000m² 규모의 화물 창고를 보유하고 있음
- 오클랜드항(Port of Auckland)은 뉴질랜드의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으로 해외 70여 개국, 165개 항만과의 연결항로를 보유하고 있음
 - 뉴질랜드 전체 GDP의 13%에 해당하는 화물을 처리(2010년)하고 있으며, 3,500천 톤의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를 보유
 - 연간 894,000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, 이는 전체 뉴질랜드 컨테이너 무역량의 60%를 차지함
 - 예선 및 도선 서비스와 항만 상황 정보·선박간 커뮤니티 등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 중임

< 타우랑가항 항만지도 >



< 오클랜드항 전경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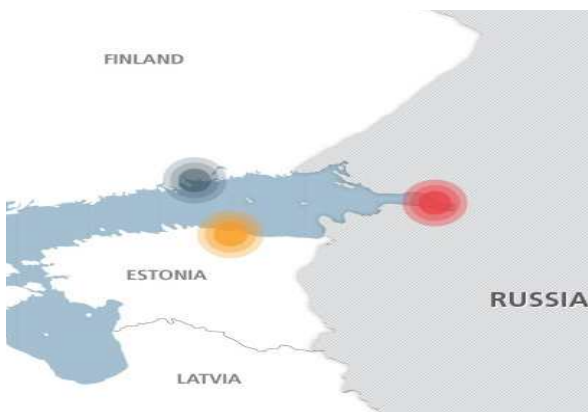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dredgingtoday.com/www.port-tauranga.co.nz/www.poal.co.nz, 2012.9.17

김일현 연구원 (☎ 02-2105-2914, blaze28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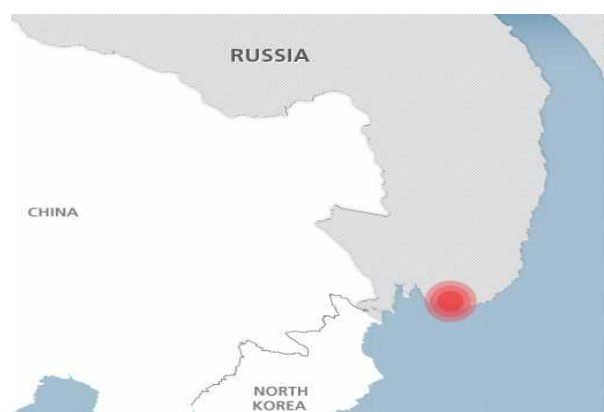
□ APMT, 러시아의 항만운영사 Global Ports의 지분 획득

- APMT가 러시아의 Global Ports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 하여 37.5%의 지분을 확보함
 - APMT는 러시아의 Global Ports 그룹의 지분 75%를 보유하고 있는 N-Trans 운송그룹의 지분 50%를 확보하여 Global Ports의 지분까지 소유하였으며 지분 가치는 8억 6천만 달러임
 - APMT의 경영 책임자는 러시아 시장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투자를 진행
 - Global Ports가 운영하는 상테부르크 항만의 컨 터미널 두 개와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 항만은 러시아 전체 물동량의 약 30%를 담당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130만 TEU를 처리하고,
 - 아울러 에스토니아의 유류 터미널과 핀란드의 Kotka항만 및 Helsinki 항만도 운영함
- Global Ports의 2011년 순 영업이익은 2억 8,200만 달러였으며 회사의 전체 주식자본 가치는 약 23억 달러로 평가됨
 - Global Ports는 러시아와 CIS 및 발틱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WTO가입과 더불어 수출입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함
 - 따라서 APMT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향후 Global Ports의 항만 운영 및 시장 확보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Global Ports는 상테부르크 항만의 Moby Dick 컨 터미널과 Petrolesport을 운영하고 있으며, Global Ports가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 항만의 75%의 지분 소유를 하고 있으며 DPW는 25%를 소유하고 있음
 - 또한 상테부르크 항만 인근에 내륙 터미널인 Yanino 로지스틱 파크를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음
 - Global Ports는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Vopak E.O.S 유류 터미널에 대해 50%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핀란드의 MLT Kotka와 MLT Helsinki 터미널에 대해서는 각각 75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

< Global Ports 발틱해 운영터미널 위치 >



< Global Ports 극동 지역 운영터미널 위치 >



자료 : www.lloydslist.com, 2012.9.10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@kmi.re.kr)

□ UAE, 아부다비 칼리파(Khalifa)항 1단계 운영 시작

- 아부다비(Abu Dhabi) 칼리파항(Khalifa Port)의 1단계 운영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
 - 칼리파항 1단계 터미널 운영사는 ADPC(Abu Dhabi Ports Company)와 DP World의 합작회사인 에미리트항만회사(Emirates Ports Company)임
 - 1단계 터미널은 연간 컨테이너 250만 TEU와 일반화물 1,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, 수심 16m, 안벽길이 4km의 반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1단계 건설비용은 72억 달러임
 - 또한 현재 STS(Ship-To-Shore) 겐트리 크레인 6개와 ASC(Automated Stacking Cranes) 30개를 보유하고 있음
- 칼리파항은 향후 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리능력을 증가시킬 예정이며, 2030년까지 컨테이너 1,500만 TEU와 일반화물 3,500만 톤 처리시설을 보유할 계획
- 칼리파항은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방향으로 76km떨어진 타월라(Taweelah)지역에 위치하며, 칼리파 산업단지(Khalifa Industrial Zone Abu Dhabi, KIZAD)¹⁾가 포함되어 있음
 - 칼리파항과 칼리파 산업단지를 통해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예정이며, 2030년까지 아부다비 비석유 GDP의 15% 이상을 담당함으로써 아부다비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관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
※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40호 참조

< Khalifa항 위치 >



< Khalifa항 전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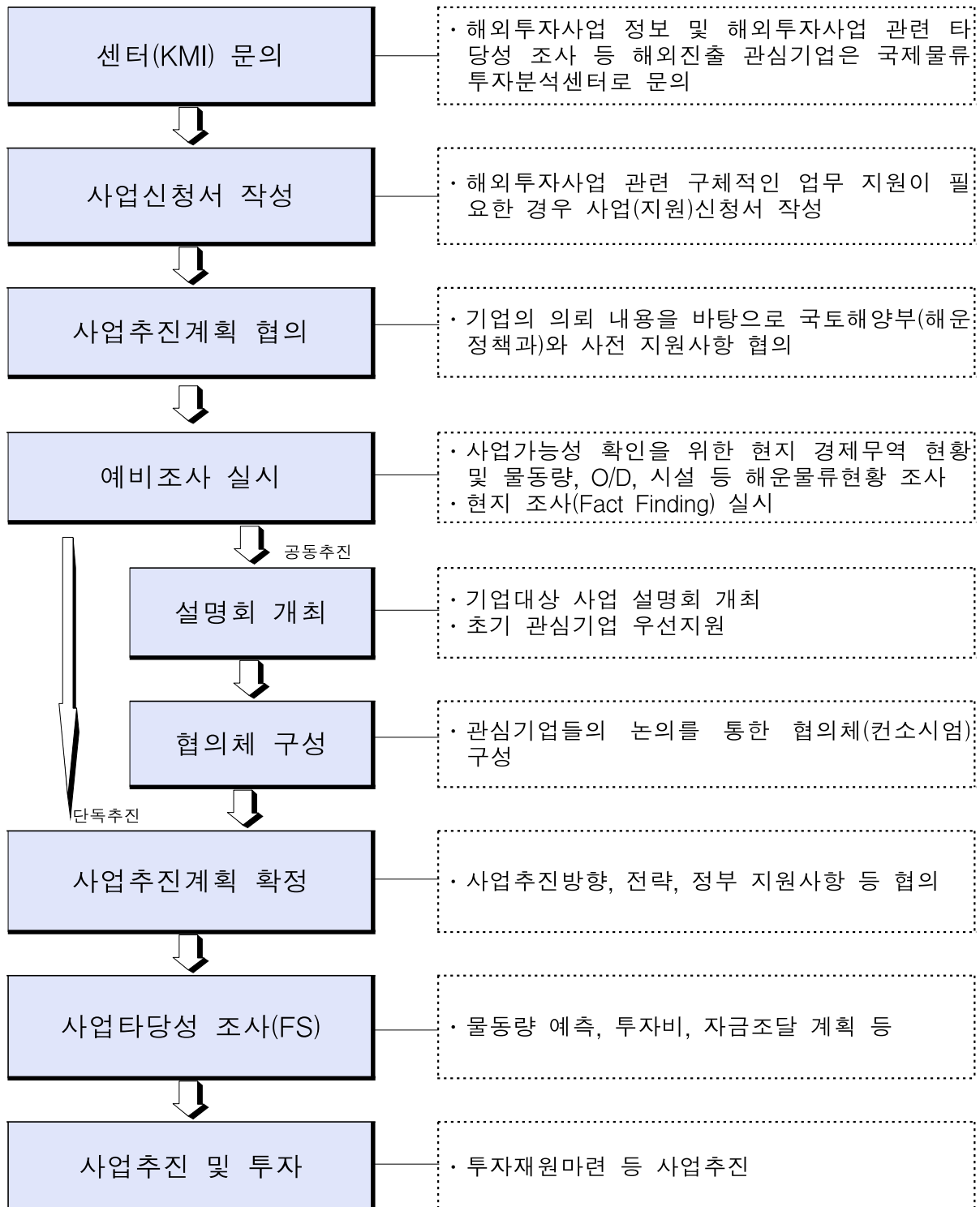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, 2012.9.5

최은혜 연구원 (☎ 02-2105-2838, choeeunhye@kmi.re.kr)

1) 칼리파 산업단지 : 아부다비의 산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하는 Abu Dhabi's 2030 Vision의 일환으로 총면적은 417km² (1단계 면적 : 51km²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